

주간지 ·지와 센세이셔널리즘

이 상 회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선진외국의 경우 주간지의 질적 차이가 다양하기 때문 최저질의 주간지나 잡지가 상당한 수준까지 센세이셔널리즘을 추구한다 해도 이를 보완하고 견제할 다른 주간지들이 얼마든지 있어 전체적인 안정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대중주간지의 수가 한정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획일적으로 평준화되어 있다. 몇 개 되지 않는 대중주간지가 모두 똑같이 극단적인 센세이셔널리즘을 추구할 때 그 역기능적 영향은 매우 크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평준화된 주간지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수용한 것을 그대로 믿지 않을 수 없다.

I

일간지와 월간지가 센세이셔널리즘을 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근년에 와서 대중주간지의 대명사가 센세이셔널리즘이 되었다고 해도 좋을 만큼 양자는 불가분리의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주간지들은 엽기적 살인사건이나 불륜의 치정관계, 그리고 연예인의 사생활과 스캔들 등을 대서특필함으로써 센세이셔널리즘을 추구하려는 일반대중의 기호에 맹목적으로 영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 도하 각 주간지들은 독물을 마시고 신음하며 죽어가는 한 여인의 모습을 찍은 일련의 사진을 몽타쥬식으로 연접하여 게재함으로써 센세이셔널리즘의 극치를 이루었다. 이모라는 40 대 초반의 아마추어 사진작가(사실은 전과 4 범의 전과자)가 정을 통한 20 대 여인을 산속으로 유인하여 독물을 감기약이라 속여 마시게 했다. 독물을 마신 여인이 온 몸을 비틀며 신음소리를 내고 죽어가자 이모는 미친 놈 모양 죽어가는 여인을 필름에 수록했는데 도하

각 주간지들은 그 필름을 입수하여 크게 게재했던 것이다. 센세이셔널리즘을 추구하는 주간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의 뉴스 밸류는 매우 높다. 범인은 전과 4범의 전과자이면서 누드사진촬영에 조예(?)가 깊은 아마추어 사진 작가인데다가 정을 통해 온 젊은 여인을 사진모델로 출세시켜 준다고 속여 산속으로 유인하여 독물을 먹인 후 여인이 신음하며 죽어가자 그 모습을 마구 찍어대었다는 잔혹한 변태행위자체가 이 사건의 선정적 가치를 높여 놓았다. 전과자, 정을 통한 여인, 누드사진, 엽기적 살인, 변태행위, 살인의 잔혹성 등등 이 사건을 형성하는 요건들이 하나같이 선정적이다. 따라서 이런 사건을 센세이셔널리즘의 화신이 된 주간지가 놓칠리 없다. 대중주간지는 일반대중을 수용대상으로 삼는다. 일반 대중들은 오락성이 높은 선정적 사건의 수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주간지는 어쩔 수 없이 선정적 사건을 대서 특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대중주간지의 센세이셔널리즘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대중주간지가 교육수준이 낮은 일반대중을 수용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일반대중이 선정적 사건의 수용을 바란다고 한다면 주간지가 기업으로 존립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센세이셔널리즘은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센세이셔널리즘은 주간지가 기업으로 존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기 때문에 주간지에서 센세이셔널리즘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센세이셔널리즘은 수용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급기야는 사회환경을 잘못 파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센세이셔널리즘이 저널리즘의 정도에 어긋나는 보도방법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보도에 있어서의 센세이셔널리즘은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경계해야 할 금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주간지의 경우 센세이셔널리즘은 필요악과 같다. 술과 담배가 인체에 해를 끼치는 줄 알면서도 이를 금지하지 못하는 까닭과 같다. 의약 보건적 측면에서 보면 분명 유해하지만 심리·사회적으로 기능적 측면이 있는 것과 같이, 센세이셔널리즘이 저널리즘의 정도에 벗어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대중의 심리정화에 기능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간단히 말해 주간지의 발행을 허용하는 한, 센세이셔널리즘을 완전히 뿌리뽑을 수 없다. 센세이셔널리즘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주간지는 주간지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수의 대중이 주간지를 수용하고 주간지가 경영면에서 수지타산을 맞추는 한, 주간지에서 센세이셔널리즘을 완전히 추방할 수는 없다. 이미 논급한 바와 같이 센세이셔널리즘은 저널리즘의 정도에 벗어나지만 대중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요악과 같다. 주간지가 존립하는 한, 센세이셔널리즘의 추구가 불가피하다 해서 주간지의 경우 무한정한 센세이셔널리즘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주간지의 경우도 센세이셔널리즘의 한계는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주간지의 윤리성이 배태된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주간지이니까 기사내용의 센세이셔널리즘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널리즘에 있어서의 선정주의는 분명한 사도다. 세계적으로 대중 주간지들은 센세이셔널리즘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 때문에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센세이셔널리즘이 사도라 하여 이를 무조건 배격하면 대중주간지는 발붙일 땅을 잃고 만다. 주간지에도 기능적이고 긍정적인 면이 있다. 센세이셔널리즘을 트레이드 마크로 삼는 주간지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한다면, 센세이셔널리즘이 역기능적인 영향만을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센세이셔널리즘에도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주간지와 센세이셔널리즘이 불가분리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해서 주간지가 치외법적의 특전을 부여 받은 것은 아니다. 센세이셔널리즘 추구가 어느 정도 보장된 주간지의 경우에도 지켜야 할 기본윤리는 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주간지도 필요하지만 주간지라 해서 저널리즘의 윤리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치외법권 지대에 있을 수는 없다. 필자는 센세이셔널리즘을 무조건 백안시하여 그 발본색원을 주장하는 청교도주의적 입장에도 동조할 수 없지만, 주간지의 센세이셔널리즘 추구를 기정 사실화하려는 태도에도 찬동할 수 없다. 「살인촬영」 사건과 「미스 서울」 사건의 주간지보도가 계기가 되어 주간지의 센세이셔널리즘 추구가 다시 한번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크로스 업 되었다. 필자는 이미 주간지의 경우 어느 정도의 센세이셔널리즘 추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시 말해 대중주간지의 발간을 허용하는 한, 어느 정도의 센세이셔널리즘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주간지라 하더라도 센세이셔널리즘의 무한정한 추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주간지도 넓은 의미의 저널리즘에 포함된다. 따라서 지켜야 할 기본윤리는 있다. 이런 시각에서 지난 번 물의를 일으켰던 「살인촬영」 사건과 「미스 ·서울」 사건의 주간지 보도를 분석해 보며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주간지가 선정적 사건을 보도하는 것과 선정적 사건을 어떻게 기사화하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살인촬영」 사건은 일반대중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따라서 일반대중을 수용대상으로 삼는 주간지가 이런 사건을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사건의 취급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주간지가 존립할 수가 없다. 엽기적 살인 사건, 불륜과 치정에 얽힌 사건, 연예인들의 스캔들 등을 즐겨 다루는 것이 주간지의 생리이기 때문이다. 대중주간지에 이런 사건들을 다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간지의 특성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대중주간지가 일반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센세이셔널한 사건을 보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대중주간지들이 「살인촬영」 사건을 일제히 다루었다 해서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이 사건을 다루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기사화할 때의 주간지의 태도가 문제가 된다. 역설적으로 말해, 센세이셔널한 사건을 보도하여 일반대중의 기호에 영합하는데 주간지의 존립이유가 있다. 센세이셔널한 사건을 어떻게 기사화하느냐가 문제될 뿐이다. 「살인촬영」 사건을 예로 들면, 이 사건의 보도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변태살인자가 찍은 사진을 확대한 후 이를 몽타쥬 형식으로 연접하여 게재했다는 데 있다. 한편 전 미스 서울 이모 양의 애정도피사건도 마찬가지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주간지가 일반 대중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에 충분한 이런 사건을 놓칠리 없다. 애정도피냐 강제납치냐도 관심거리지만 서로 알게 된 동기와 5 개월간의 미국생활의 내막 등등도 흥미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건보도의 당위성을 인정한다는 것과 사건을 기사화하는 방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다. 도하 주간지들이 미스 서울 이모양의 사건을 다루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상처를 보여주기 위해 이양의 전라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 크게 게재한 보도방법은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주간지의 경우 센세이셔널한 사건을 보도할 수는 있어도 센세이셔널한 사건을 필요이상으로 센세이셔널하게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반대중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선정적 사건을 기사화할 때 그 선정성을 필요 이상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선정적 사건의 선정성을 자극하는 보도방법은 주간지 저널리즘의 윤리 강령에도 저촉된다. 대중주간지가

지켜야 할 윤리강령의 본령은 무엇을 보도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있다. 만약 주간지 저널리즘의 윤리강령을 보도대상의 영역에 까지 확대하여 선정적 사건의 보도자체를 금기로 만든다면 대중주간지의 존립이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주간지의 윤리를 문제삼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지고 만다. 왜냐하면 대중주간지가 없는데 대중주간지의 윤리성 여부가 문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중주간지의 윤리성은 보도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도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배태된다. 다시 말해 선정적사건을 기사화할 때 추구할 수 있는 센세이셔널리즘의 한계를 명백히 해주는 것이 대중주간지가 지켜야 할 기본적 윤리강령이 된다. 그리고 대중 주간지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의 본령이 무엇인지 옳게 파악하려면 왜 대중이 선정적사건의 수용을 원하며, 선정적 사건의 보도와 수용이 언제나 역기능적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뿐 아니라 주간지의 센세이셔널리즘을 허용 혹은 묵인하는 정도와 한계는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적 · 타율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주간지의 센세이셔널리즘이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허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주간지의 센세이셔널리즘이 중요한 사회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지의 판매부수는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센세이셔널한 사건을 수용하는 독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일반대중이 왜 그토록 선정적 사건의 수용을 원하는지를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II

계몽주의 시대로 특징 지워지는 18~19 세기의 자유주의자들은 사람은 누구나 타고나면서부터 옳고 바른 정보 즉 양질의 정보만을 취하고 악질의 정보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온갖 정보와 메시지가 자유스럽게 유통되는 정보의 자유시장만 만들어 주면 된다는 극한적인 자유주의이론을 폈다. 그러나 이들 자유주의자들의 자유주의이론이 잘못된 전제에서 비롯된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정보를 수용함에 있어 옳게 판단하여 옳게 선택할 능력을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온갖 정보와 메시지가 자유스럽게 유통되는 정보의 자유시장이 이루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고 바르고 유익한 정보를 택하기보다 과장·왜곡·조작된 정보 즉 유해하더라도 재미있는 정보를 택한다. 따라서 정보의 자유시장만 만들어주면 모든 일이 모두 옳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자유주의자들의 이론은 허구를 전제하고 있다. 정보와 메시지의 수용자가 모두 옳은 정보와 그른 정보를 구별할 능력을

지니고 있어 언제나 옳고 유익한 정보만을 택한다면 정보의 송출과 유통과정의 어떤 규제나 통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정보와 메시지의 수용자가 그런 능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 규제에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될 수 있는 한 타율적 규제가 아닌 자율적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자율적 규제도 규제임에는 틀림없다.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옳지 못한 정보, 유익하지 못한 정보가 유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용되고 있음을 말한다. 옳지 못한 정보와 메시지 즉, 왜곡·연출·변형된 정보와 메시지의 경우, 자율적 규제의 필요성은 두말 할 것도 없고 타율적 규제의 정당성까지 부여된다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옳지않은 정보의 경우, 그 정보가 얼마나 왜곡·연출·변형되었는지를 비교적 쉽게 가려낼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특정 정보의 유해성 여부를 가려내는 일은 정보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일처럼 쉽지 않다. 왜냐하면 유해성 여부를 가름할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A가 수용하면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도 B가 수용하면 해롭지 않는 경우도 있고 C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D에게는 유익한 정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정보의 유익성과 유해성은 이를 수용하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용자와 수용자로 구성된 사회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정보와 메시지를 규제할 때 그 유해성의 기준이 문제가 된다. 유해성을 절대적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유해하다고 판단한 정보에 대한 규제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매우 상대적인 기준으로 정보와 메시지의 유해성여부를 가려내어야 하고 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정보에 규제를 가해야 하기 때문에 유해하다고 판단한 정보에 대한 규제의 타당성은 그릇된 정보에 대한 규제의 타당성보다 약하다.우리가 주간지의 센세이셔널리즘을 비판하는 이유는 흥미위주의 사건을 선정적으로 다룬 기사가 이를 즐겨 수용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센세이셔널리즘은 그릇된 정보, 옳지 않는 정보의 문제가 아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문제다. 만약 대중주간지가 있지도 않은 사건을 날조하여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다면 이와 같이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타율적 규제가 가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센세이셔널리즘은 사건의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 그 사건의 선정적 측면을 확대하여 보도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타율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허위보도와는 달리,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의 범주에 넣어 파악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센세이셔널리즘은 타율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보다 자율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다. 보도의 센세이셔널리즘이 타율적 규제의 대상이 아닌 자율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형사적 책임을 지는 법률의 재제대상이 되기보다 저널리즘의 윤리강령에 저촉되는 보도행위가 된다는 뜻이다. 센세이셔널리즘이 저널리즘의 정도에 어긋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센세이셔널리즘의 문제는 보도의 유해성 여부를 상대적 기준으로 따지는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비록 유해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성을 지니고있다. 필자는 앞에서 대중주간지는 흥미위주의 사건(human interest)을 다루는 데 그 특성이 있다고 했지만 사회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사건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용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사건만을 보도하는 대중주간지의 보도방법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 수용자의 기호에 맹목적으로 영합하고 있는 대중주간지의 기사선정방법을 결코 저널리즘의 정도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휴먼 인터레스트의 재미있는 기사가 언제나 역기능적 영향만을 작용한다는 극단적인 비판론을 펴는 것도 옳지 않다. 흥미의 대상이 되는 재미있는 기사를 수용하려는 성향을 인간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지니고있다. 분석심리학자들은 이런 인간의 성향을 자기방어본능의 발로로 풀이하고 있다. 엽기적 살인사건, 패륜적 행위, 불륜의 애정행각을 다룬 기사를 수용하는 수용자는 상대적으로 나은 입장에 있는 자기의 상태를 재확인하고 이런 확인과정을 통해 심리적인 쾌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기사를 수용하는 사람의 상태가 기사의 주인공이 되는 인물의 상태보다 낫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자기방어본능을 충족시키는 것과 같다. 한편 프로이드(Freud)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발현하려는 본능적 욕구(ego)를 타고나지만 규칙, 규범, 도덕, 윤리, 법과 같은 사회제도(superego)가 이를 억압하고 있다고 보고 인간의 행위를 에고(ego)와 슈퍼에고(superego)의 갈등으로 설명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대중주간지가 다룬 사건의 주인공들은 대개 사회제도가 강요하고 있는 금기를 파기한 사람들이다. 사람은 누구나 에고(ego)를 발현하려는 본능적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 제재 때문에 에고(ego)를 억압당하고 있는데 주간지의 주인공들은 이를 깨어 휴먼 인터레스트(human interest)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휴먼 인터레스트의 기사를 수용하는 수용자는 사회제도의 금기를 깬 주간지의 주인공과 자기를 심리적으로 동일시(identification)함으로써 대리만족(vicarious gratification)을 얻는다는 것이다. 휴먼 인터레스트 기사를 수용하여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기의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심리적 보상을 얻던, 휴먼 인터레스트 기사의 주인공과 자기를 동일시함으로써 심리적 대리만족을 하던 휴먼 인터레스트 기사가 수용자의 심리적 필요를 충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간단히 말해 주간지가 즐겨 다루는 흥미위주의 사건기사도 최소한 이를 수용하는 수용자를 심리적으로 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간지가 수용자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역기능적이라 해서 그 심리적 영향까지 역기능적인 것은 아니다. 주간지의 사회적 기능은 역기능적일 수 있어도 그 심리적 기능은 순기능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중주간지가 즐겨 다루는 흥미위주의 사건기사가 수용자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언제나 역기능적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고도로 조직화되고 분화된 기능사회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이 감당해야 할 정신적 피로와 심리적 불안은 크다.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어려운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주간지의 흥미기사는 현대인의 정신적 피로와 심리적 불안을 일시적으로나마 풀어 주는 심리적 부화작용을 할 뿐 아니라 사회성원이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의 보도를 통해 사회성원을 통합하는 기능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휴먼 인터레스트의 사건만을 다루는 주간지와 주간지의 센세이셔널리즘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수용자가 휴먼 인터레스트만을 계속 수용하게 되면 사회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건 중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고 만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중주간지는 중요하지 않는 사건들을 중요한 사건인 것처럼 대서특필함으로써 수용자들에게 잘못된 판단기준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성원이 주위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현상을 옳게 파악하고, 판단하여 그 대응책과 개선책을 강구해야 불행한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주간지와 주간지가 다루는 흥미위주의 기사는 주위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과 현상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간지는 중요하지않는 흥미위주의 사건을 대서특필하여 중요한 사건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잘못된 평가 및 가치기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뒤집어 놓고 보면 대중주간지는 국민의 불필요한 정치·사회·경제적 관심을 이산시켜 사회불만과 사회불안을 해소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한국과 같이 급격한 사회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의 경우, 국민의 원망수준은 매우 높고 또 정치·사회·경제적 사건과 현상에 대한 관심은 높다. 사회성원의 정치·사회적 관심이 크고 원망수준이 높다면 어쩔 수없이 사회적 불만도 올라가기 마련이고 이렇게 되면 사회불안이 조성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성원의 불필요한 정치·사회적 관심을 이산시켜 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진다. 휴먼 인터레스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중주간지가 바로 그런 기능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대중주간지와 섹스전문지 등을 이와 같은 대중 조작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얼마든지 있다. 불필요한 정치적 관심을 둔화하고 이산시키기 위해 대중의 주간지 수용을 음성적으로 권장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대중주간지와 주간지의 센세이셔널리즘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게 된다.

오늘날 각종 매스 미디어는 엄청난 양의 정보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 정보와 메시지 중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대중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다. 이해할 수 없는 정보와 메시지가 홍수처럼 폭주할 때 정보에 압도된 일반대중은 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기보다 그 정보를 처음부터 외면해 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는 대중을 정보불감증에 걸리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중은 재미있고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주간지의 휴먼 인터레스트를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휴먼 인터레스트를 추구하려는 대중의 기호에 영합하기 위해 흥미위주의 사건을 선정적으로 다루게 된다. 매스 미디어의 수용자가 매스·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수용하는 동기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다. 투입하는 노력에 비해 기대되는 보상이 적다고 판단하면 그 메시지를 외면할 것이고 반대로 노력에 비해 보상이 크다고 판단하면 수용한다. 메시지의 선택은 투입된 노력과 기대된 보상의 관계에서 결정된다고 월버 슈람(Wilbur Schramm)은 말했다. 휴먼 인터레스트의 기사는 수음과정에 투입하는 노력은 적지만 직접적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비해 수음과정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메시지는 직접적 보상(direct reward)를 주기보다 지체된 보상(delayed reward)을 주는 경우가 많다. 직접적 보상은 보상의 시효(기간)이 짧지만 지체된 보상은 보상의 시효가 길다.

일반대중은 매스 미디어의 메시지를 수용함에 있어 많은 노력을 투입하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력을 투입한다 해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변용이 되면서도 직접적인 보상을 주는 메시지를 수용하고자 한다. 이런 메시지의 대표적인 것이 대중주간지의 휴먼 인터레스트 기사다. 필자는 지금까지 대중주간지의 휴먼 인터레스트 기사와 주간지의 센세이셔널리즘을 구별해야 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주간지의 휴먼 인터레스트 기사는 그 나름대로 필요하다. 따라서 휴먼 인터레스트 기사를 주로 다루는

주간지도 필요하다. 그러나 대중주간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것과 주간지의 센세이셔널리즘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르다. 한 마디로 말해주간지가 흥미위주의 사건인 휴먼 인터레스트를 다루는 것은 무방하지만 기사화 과정에서 선정적으로 처리하는 정도가 지나치면 그것이 바로 센세이셔널리즘이 되고, 지나친 센세이셔널리즘은 저널리즘의 정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된다.

III

인간적 흥미를 끌 수 있는 사건을 기사화할 때 어느 정도의 과장은 불가피하다. 휴먼 인터레스트의 사건에 엄청난 지면을 할애하고 큼직한 활자로 대서특필하는 것 자체가 센세이셔널리즘이다. 만약 일반 수용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사건을 대서특필하여 취급하지 못하게 한다면 대중주간지는 존립할 수가 없다. 따라서 대중주간지의 존립을 인정하는 한, 어느 정도의 센세이셔널리즘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대중주간지라 해서 센세이셔널리즘의 추구가 무제한 보장되거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센세이셔널리즘은 저널리즘의 정도가 아니다. 저널리즘의 정도에 어긋나는 센세이셔널리즘을 주간지라 해서 무제한 허용할 수는 없다. 다만 대중주간지의 특성과 성격을 감안하여 일간지와 같은 매스·미디어에 비해 센세이셔널리즘을 조금 더 허용한다는 것 뿐이다. 일간지와 주간지는 그 기능이 다르다. 기능이 다른 두 매체에 꼭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주위환경 감시의 기능을 일차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간지가 발행부수를 늘리기 위해 센세이셔널리즘을 추구한다면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n)이 말한 의사환경(pseudo-environment)이 조성될 것이고, 뉴스 및 정보전달의 일차적 수단인 일간지가 의사환경을 만들어내면 이를 수용하는 수용자는 사실을 허구로, 허구를 사실로 잘못 파악하고 말기 때문에 일간지의 센세이셔널리즘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일간지가 주위환경을 감시하고 처방하는 기능을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비해 주간지의 일차적 기능은 일반대중이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읽을거리를 주어 조직사회가 작용하는 정신적 피로와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 일간지의 기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주간지의 센세이셔널리즘을 평가한다면 주간지의 기사는 대부분 고발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간지의 경우에도 센세이셔널리즘을 추구하는 한계는 있어야 한다. 미스 서울 이모양을 다룬 주간지들을 예로 들어보면 이 사건을 기사로 다룬 것은 주간지의 기능과 성격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기사화과정의 지나친 센세이셔널리즘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양을 납치(?)해 간 한 모가 이양에 가한 린치의 상처(주간지들은 이를

「애정행각에 멍든 여체엔 상처만이…」 「상처로 얼룩진 나체사진 파문」 「만신창이로 돌아온 미인의 몸매」 등의 헤드라인을 달았음)를 보여주기 위해 거의 전라가 된 이양의 사진을 7-8 장 혹은 10 여장씩 게재했는데 큰 사진은 한 페이지 사이즈다. 이렇듯 전라의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상처를 선명하고 똑똑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에로티시즘(eroticism) 을 충족하기 인한 편법에 불과하다. 상처를 보여준다는 것을 이유로 전라의 사진을 크게 게재한 것 이상 아무 것도 아니다. 더구나 상처투성이의 사진을 보면 우선 너무나 징그럽고 흥칙해 혐오감이 생긴다. 휴먼 인터레스트의 사건을 다루는 것은 좋지만 독자에게 혐오감이나 거부감까지 주어서는 안된다. 주간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센세이셔널리즘의 정도가 지나쳐 독자가 혐오감이나 거부감을 느끼는 데까지 이르면 비판과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미스 서울 이모양 사건의 경우 사건의 핵심은 이양의 몸에 난 상처가 아니다. 위조여권을 가지고 도미하게 된 경위와 재미 교포란 말에 순순히 몸을 맡기고 도미를 결행(?)한 동기, 그리고 F.B.I.의 수사대상이 되어 국가적 물의를 일으킨 경위 등등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양의 전라사진을 크게 게재함으로써 사실보도를 위장한 외설행위를 한 것은 지나친 센세이셔널리즘의 추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살인촬영」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의 주인공 이모는 변태행위와 잔혹행위를 즐기는 세디스트(sadist)요, 일종의 정신병자다. 이런 자가 저지른 변태적 살인행위를 주간지가 대서특필로 다룬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다룬 방법은 문제가 된다. 고통으로 몸을 비틀며 죽어가는 여인의 사진을 몽타쥬시켜 크게 게재함으로써 이를 보는 사람의 혐오감을 자아내게 했을 뿐 아니라 죽어가는 여인의 옷까지 벗겨 거의 전라의 상태를 만듦으로써 가학적이고 변태적 성욕정(sadistic eroticism)을 자극했다. 사건보도를 빙자한 주간지의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센세이셔널리즘이다. 휴먼 인터레스트의 사건을 보도하는데 주간지의 특성과 존재이유가 있다 해서 세디즘과 에로티시즘을 자극하는 극단적 센세이셔널리즘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IV

우리는 선진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우리의 상태를 파악하고 선진외국의 예를 들어 우리의 상태를 설명한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의 대중주간지 중에는 우리나라 주간지보다 더 센세이셔널리즘을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 외설적 내용의 잡지도 우리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것을 싣고 있다. 그러나 선진외국의 기준을 그대로 한국의 주간지나

잡지에 적용할 수는 없다. 상황적 조건이 다를 뿐 아니라 사회규범과 관습이 다르고 또 민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중주간지나 잡지가 존립하는 형태가 선진외국과 우리는 다르다는 사실이다. 선진외국의 경우 종류와 내용면에서 다양한 주간지와 잡지가 혼재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 최고 지성들만이 수용하는 고급 주간지와 잡지 그리고 가지각색의 전문지가 있는가 하면 중간지도 있고 또 교육수준이 낮은 대중주간지나 잡지도 있다. 중간계층이 즐겨 읽는 주간지나 잡지에도 층계가 많고 또 대중주간지나 잡지에도 종류와 층계가 많다. 이렇듯 다양한 주간지와 잡지가 혼재하는 상황에서는 그 중 가장 저질의 주간지는 센세이셔널리즘을 상당수준까지 추구할 수 있다. 주간지의 질적 차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최저질의 주간지나 잡지가 상당한 수준까지 센세이셔널리즘을 추구한다 해도 이를 보완하고 전제할 다른 주간지들이 얼마든지 있어 전체적인 안정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대중주간지의 수가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획일적으로 평준화되어 있다. 몇 개 되지 않는 대중주간지가 모두 똑같이 극단적인 센세이셔널리즘을 추구할 때 그 역기능적 영향은 매우 크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평준화된 주간지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수용한 것을 그대로 믿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다양한 내용과 종류의 주간지들이 혼재하며 조화를 이룰 수만 있다면 일부대중주간지의 센세이셔널리즘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선진외국의 저질 대중주간지가 추구하는 극단적 센세이셔널리즘을 그대로 용납할 수는 없다. 끝으로 부언해 두어야 할 것은 센세이셔널리즘은 어디까지나 자율적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지 타율적 규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센세이셔널리즘을 타율적으로 규제하려 들면 대중주간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영문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박사)

- 저술: 「TV 인간론」, 「매스커뮤니케이션 사회화」, 「매스 커뮤니케이션 총론」 외 다수

- 현재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